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, 미 제조업 후퇴
- WSJ: 이번주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 지연...일시 연방 섯다운으로
- CNBC: Ray Dalio, “세상은 현재 자본전쟁 직전 상태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오늘 증시는 소형주로 이동
- Bloomberg: 구리 가격 반등...중국 산업계의 비축 측구에

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: 트럼프, “하버드대에 10억불 손해 배상 추진”

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, 인도와의 전격적인 관세 협상으로 관계 복원

[주택]

- Bloomberg: 미 건설업체들, ‘트럼프 주택’ 프로그램으로 100만 가구 주택 공급 추진

[에너지]

- WSJ: 구글, 데이터센터 전력 경쟁 우위 추진

[인공지능]

- YahooFinance: 팔란티어 4분기 실적 예상 뛰어넘어
- Bloomberg: 펩시, 수요 늘리려 제품 가격 인하

[미국 경제]

WSJ: U.S. Manufacturing Is in Retreat and Trump’s Tariffs Aren’t Helping **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, 미 제조업 후퇴**

- 미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지난 2023년 이래 거의 20만 개 이상 감소했다. 제조업 분야의 근로자 숫자가 팬데믹이 끝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.
- 어제 월요일 발표된 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 활동은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 동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해외 원자재들을 수입하는 미 제조업체들의 비용이 증가해 가격이 올랐으며 공급망도 혼란을 가져와 결국 투자도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.



기사

WSJ: Federal Shutdown Delays Friday's Jobs Report 이번주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 지연...일시 연방 섯다운으로

- 5개월 만에 두 번째로 연방 정부가 두 번째로 섯다운 상태다. 현재 연방정부가 일부 섯다운 상태에 있다.
-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인 주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.
- 이를 발표하는 연방통계국은 현재 예산 부족과 관련 인력 부족, 그리고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통계국장이 없는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이코노미스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까지 관련 정부 데이터에 의존해 왔는데 관련 자료 지연으로 인해 앞으로 덜 포괄적인 민간 부문 고용 자료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.

기사

CNBC: Ray Dalio warns the world is 'on the brink' of a capital war Ray Dalio, "세상은 현재 자본 전쟁 직전 상태"

-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Ray Dalio는 오늘 화요일에 세상은 자본 전쟁 직전 상태라고 진단했다.
- 그는 중앙은행들과 국부펀드들이 이미 외환 통제나 자본 통제와 같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.
- 그가 말하는 자본 전쟁은 무역 금수 조치, 자본시장 접근의 차단, 또는 부채 보유를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무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.
- 그는 예컨대 미국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한 유럽 측은,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역시 유럽으로부터 자본이나 투자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똑같은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. 유럽 투자자들이 지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미 국채 해외 구매의 80%를 차지했다.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Stock Rotation Hits Big Tech as Small Caps Rise 오늘 증시는 소형주로 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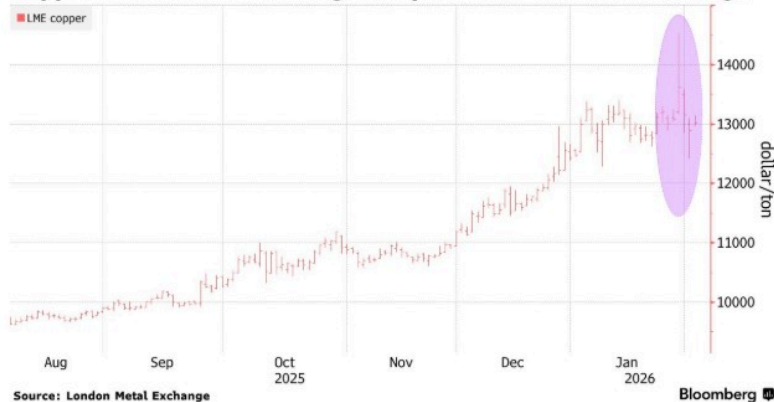
- 최근 대형 기술주의 랠리가 식으면서 경기에 민감한 산업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의 최고치에 가까웠던 S&P500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금과 은의 큰 매도세 후에 하락 매수세를 통해 랠리가 이어졌고 달러의 상승세는 중단됐다.
- S&P 500의 5백개 종목중에 350개 종목은 상승했으나 지수는 내렸다. 오후 11:50am 현재 0.66%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- 반면에 나스닥 100은 1.1% 하락했으며 반면에 소형주 Russell 2000지수는 0.8%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
- 달러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뒤 하락했다. 국채 수익률은 거의 횡보를 거듭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.

Bloomberg: Copper Rebounds as China Industry Group Calls for Stockpiling

구리 가격 반등...중국 산업계의 비축 촉구에

- 바로 최근 은과 금이 주도한 금속 시장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구리 가격이 반등했다. 특히 중국 정부와 연결된 산업단체가 핵심 산업 금속인 구리의 전략 비축 확대를 촉구했다.
- 중국 비철금속 산업협회(China Nonferrous Metals Industry Association)는 오늘 화요일 업계 동향을 진단하는 연례 설명회에서, 전략 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국유 생산업체들과 협력해 상업용 구리 재고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.
- 이와 관련 런던금속거래소(LME)에서 구리 가격은 톤당 최대 4.6% 상승해 13,478달러까지 올랐다. 이는 지난주 목요일 사상 최고치 이후 월요일 종가까지 11% 급락한 뒤의 반등이다. 다른 비철금속들도 런던금속거래소에서 상승했고, 금과 은도 크게 반등했다.

Copper Stabilizes Following Sharp Retreat From Record High



[트럼프 행정부]

Bloomberg: Trump Says He's Seeking \$1 Billion From Harvard University

트럼프, “하버드대에 10억불 손해 배상 추진”

- 트럼프는 하버드대에 10억불의 손해 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.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비리그에 대한 재정적인 손해 요구를 철회했다는 보도후에 아이비리그를 새로 압박하는 모습이다.
- 즉,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2억 달러를 요구하는 압박을 철회했다는 뉴욕타임즈 기사 보도후 수시간만에 이같이 트럼프는 밝혔다.
- 트럼프는 학교내 반유대주의 문제에서 출발한 분쟁 관련해 하버드에 대한 연방 연구 자금 지원 중단과 세금 면제 지위를 위협해 왔다.

[무역 전쟁]

Bloomberg: Trump's Surprise Trade Deal With India Resets Fractured Ties

트럼프, 인도와의 전격적인 관세 협상으로 관계 복원

- 트럼프와 인도 모디 수상은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주요한 행보를 보였다.
-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%에서 18%로 줄였는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낮은 관세율이다.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산 오일을 수입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25%의 관세를 부과받았다.
-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제품 5천억 달러를 구매하고,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러시아산 오일 구매를 합의했다.

[주택]

Bloomberg: Builders Push 'Trump Homes' to Win Backing for a Million Houses

미 건설업체들, '트럼프 주택' 프로그램으로 100만 가구 주택 공급 추진

- 미 건설업체들이 미국의 주택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'트럼프 홈 (Trump 주택)' 개발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.
- 이에 따르면, 건설업체들은 민간 투자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 소유 진입 프로그램에 맞춰 초급형 주택(entry-level homes)을 판매하게 되며, 세입자의 월 납입금은 3년 후 다운페이먼트로 인정된다.
- 프로그램 규모는 참여하는 건설업체 수에 따라 달라지며, 논의 중인 목표는 최대 100만 가구로, 이는 2,500억 달러 이상의 주택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이다

WSJ: Google Is Spending Big to Build a Lead in the AI Energy Race

구글, 데이터센터 전력 경쟁 우위 추진

- 구글은 풍력과 솔라 개발사인 Intersect를 47억 5천만 불에 매입해 구글의 데이터센터 전력을 확보해 전력회사를 가진 유일한 빅테크가 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.
- 구글은 원자력, 지열(geothermal 발전소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고, 전력망 과부하 시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을 줄이는 테스트도 처음으로 시도했다.
- 이번 합병 인수를 통해 구글은 신규 발전소 건설 속도보다 기술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나타나는 전력 공급 부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YahooFinance: Palantir Q4 earnings beat Wall Street estimates on strong sales to US businesses

팔란티어 4분기 실적 예상 뛰어넘어

- 데이터 분석 및 소프트웨어인 팔란티어의 4분기 실적과 매출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 넘어 주가가 10% 가까이 상승했다. 특히 이 회사는 미 민간 비즈니스와 정부에 동시에 매출 실적을 보였다.
- 4분기 매출은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70%가 넘는 14억 달러를 기록해 월가의 예상치 13억 달러를 초과했다.
- 이 회사의 향후 1분기 매출 가이드스는 15억 달러로 분석가의 예상치 13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올해 1년 치 매출 전망은 72억달러로 전망치 63억달러를 초과했다.

기사

Bloomberg: PepsiCo to Cut Lay's, Doritos Prices by Up to 15% to Boost Sales

펩시, 수요 늘리려 제품 가격 인하

- 펩시사는 자사의 핵심 브랜드인 Lay's and Doritos 등의 제품 가격을 많게는 15%까지 인하하고 있다. 보다 저렴한 제품 공급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려는 전략이다.
- 뉴욕에 본사를 둔 간식 및 음료 회사인 펩시사는 슈퍼볼이 열리는 이번 주 일요일을 앞두고 인기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인하를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, 제품 용량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.

기사

